

구원과 세례

원중호 목사(부산 성지 그리스도의 교회, 전 KC대학교 총장 및 교수)

I. 들어가는 말

필자는 나름대로 지금 참빛지 상을 통해서 환원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적 구원 진리를 연재하고 있다. 그러나 구원과 세례의 문제는 순서상 아직도 먼 훗날에 가서야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두는 감이 없지 않지만 어찌하여 구원은 믿음으로만 아니고 세례까지가 포함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중심으로 이 글을 쓴다. 필자의 의도는 전 세계 기독교를 향하여 세례가 절대적인 구원의 조건임을 밝히려는 것과 함께 그보다 먼저 성경대로의 환원운동의 주체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세례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임을 공인하고 확신하려 함을 목적으로 이 글을 쓴다. 기독교의 존재 목적이 인간의 구원이다. 또한 그것은 이 세상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롬5장14절)”이라는 성경의 확증 때문이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은 인간을 비롯한 이 세계의 존재 목적이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이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역시 확증하여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구 안의 모든 것은 산과 바다와 들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풀 한 포기까지라도 인간의 구원이라는 이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과 무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렇다면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러시아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 세계 안의 모든 나라나 민족들도 다 구원을 위하여 존재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원론적으로 기독교는 사회의 정의나 어느 민족이나 국가의 안정과 나아가서 인류의 평화 같은 것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빈부의 격차를 해소 한다든지 병약자들을 돌보아 주는 것 같은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그러한 일이 구원과 무관하지 않으려면 순수 구원의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러한 방법으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원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중심으로 이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틀림없다면 그 창조의 목적이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는 삶은 모두가 참이 아니다. 거짓이다. 그것은 모두 죄악이다.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롬14장23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II. 구원의 필요성

인간에게는 어찌하여 구원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은 반드시 제기되어야 한다. 까닭은 구원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고 생과 사의 문제 곧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생사만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산다. 그것은 영적인 자아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육적 자아가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인간은 단순히 육적 자아만 있는 고등 동물이 아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이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영적 자아가 참 인간 자기인 것이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육적 존재가 되었고 따라서 육적 자아가 “자기”라고 의식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그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구원인데 육적 존재가 된 인간은 그러한 영적 갈망이나 관심 같은 것은 아예 없고 오직 육적 욕망을 추구하며 실현 성취하는 것을 최대의 성공과 행복으로 의식하는 가치관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영적 인간이라야 참 인간이기에 육적 인간으로 사는 것은 다 거짓인 것이다. 참이 아니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것은 생명이 아니고 사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생명을 사는 삶이 아니라 사망을 사는 삶인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이 다시 사는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시다(요14장6절). 그러므로 구원은 반드시 받아야한다.

Ⅲ. 구원의 방법

구원이 이 세계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은 곧 인간의 존재 목적이 구원이라는 의미임은 너무 당연한 이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존재 이유를 상실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아무리 권력가로, 재력가로, 우주 과학자로, 문화 예술가로, 또는 스포츠 영웅으로, 아니면 연예인 대스타로 성공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 자로 산다면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그는 인생 실패자이며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죄인인 것이다. 그러므로 동서 고금남녀 노유, 빈부귀천의 차별 없이 인간은 누구를 물론하고 구원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성공한 사람이기 전에 참 삶을 사는 생명의 사람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구원을 과연 어떻게 받는가라는 물음은 역시 필연적인 것이다.

A.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간들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묻기 전에 구원의 근거를 간략하게라도 말하여야 할 것 같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말하였듯이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인데 곧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이다. 이단을 제외한 기독교단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구원의 절대적 근거라는 사실을 긍정 하지 않는 곳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절대적인 구원의 근거인가를 신학적으로가 아니고 가장 평이하게 말하고자 한다.

죄의 값은 사망(롬6장23절)이라는 말씀의 뿌리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창2장17절)”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여간 인간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에 그리스도가 인류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르신 것이 십자가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면 되었지 어찌하여 다시 살아나야 하셨는가라는 의문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도 분명히 죄의 값이었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그 죽음은 그분 자신의 죄의 값이 되고 만다는 의

미이다. 그런데 그분은 다시 살아 나셨다. 따라서 그분의 죽음은 분명히 죄의 값이었지만 그분 자신의 죄의 값은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인간의 죄의 값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인간의 구원의 길은 열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유일무이한 구원의 절대적인 근거인 것이다.

B. 그렇다면 실로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여기서도 필자는 선택과 유기라든지 아니면 “선행 은총”이라는 것을 근거하여 선택과 유기를 반대하는 소위 알미니안들의 입장들을 평가하는 일들은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필자는 그러한 입장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그러한 평가는 이미 “예지 예정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충분히 하였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공개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다만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반드시 세례가 포함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만을 취급할 것이다.

ㄱ.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입장

이것은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구원론의 대원칙이 되어 있다. 과연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 성경적 진리인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아벨로부터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구속사적으로 부단히 열거 하고 있으며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직, 간접적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성경은 실로 많이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님 자신도 자기를 믿는 믿음이 구원의 조건임을 말씀하셨기(요3장14절-16절, 17절, 6장40절, 47절, 11장25,6절) 때문에 믿음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의 조건임을 말하고 있다.

ㄴ. 세례가 포함 되어야 한다는 입장

이 입장은 세례만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지 않는다. 믿음과 함께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믿는다. 그 성경적 근거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막16장15절-16절)”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1) 첫째 이 말씀은 세례를 복음이라고 하셨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세례를 받아야 구원이 된다는 것은 행함으로의 구원을 말한다는 이유로 그것은 율법으로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긍정할 수 없다고 기독교 신학은 강조하여 왔다. 세례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님에도 말이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세례는 복음이라고 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세례는 행함으로의 구원을 말한다고 하여오는 전 세계의 기독교의 입장은 비 성경적 오류를 범하여 왔다는 너무도 명백한 확증이다.

(2) 둘째로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은 온 천하 만민이 그 대상이다. 왜냐 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3) 셋째로 누가 언제 이 복음을 말씀 하셨는가?

물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땅위에 오셨던 목적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복음이라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야말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복음이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이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인 인간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완전히 수행하신 다음에 그 수행자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복음이기 때문이다.

(4) 넷째로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이유

그것은 한마디로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 하는 것 곧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환원 운동의 대열에 선 사람이 있다면 골로새서 2장 12절과 로마서 6장 3,4절을 주의 깊게 필독하시기 바란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인간 구원의 절대적인 근거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사역인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하여야 우리 자신의 것으로 적용이 되는가를 물어야한다. 다시 말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구원 사역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은 분명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냥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아니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자신의 것이 되어야 실제로 그 속죄의 효능을 입을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이다. 그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다. 성경은 세례가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이라고 확증한다. 한 번 더 강조한다면 성경은 세례이외의 다른 것으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일도 없을 뿐 아니라 그 효능을 입는 일은 없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이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행2장38절, 22장16절). 그렇게 죄 사함이 되니까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IV. 구원 문제와 관련한 십자가의 전후 시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신학계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많이 고찰하여 왔다. 그러나 거의 모두가 정확도가 빈약하였다고 생각한다. 우선 필자가 신앙 초년 시절에 환원운동의 선배 한분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였다. 오늘날도 그러한 사람이 있겠는지는 알 수 없으나 “천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행4장12절)”는 말씀이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요14장6절)”는 말씀은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시작될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만 받는다는 확증이다. 그러므로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역시 성경의 확증인 것이다.

A. 구약 시대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구원이 적용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질문 하나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것은 십자가 이전 시대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십자가의 은총이 적용 되는가라는 물음이다. 당연히 소급해서 적용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이 아직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인데도 그 시대의 자들에게 그 속죄의 효능이 적용될 수 있겠는가 그 말이다. 물론 적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속죄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야 그 이전 시대에 믿은 자들에게 소급하여 구원이 적용되어도 된다고 하여야 한다. 그러한 성경적 증거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 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요8장56절)”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며 또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에게 대하여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 하였으며 멀

리서 그것들을 보고 환영 하였다(히11장13절)”고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히11장39절-40절)”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을 끝내고 있다. 즉 구약 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약속된 구원은 그들의 시대에는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였고 다만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환영하였다는 말이다. 특히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도 그리스도 자신의 때를 보았다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하심으로서 그분 자신도 십자가 이전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그들 시대에는 적용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셨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곧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인데 그것은 믿으면 그 즉시로부터 속죄의 효능을 입는다는 의미와 함께 보다 더 큰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앞으로 확인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직접적으로 받는 일이 없었다면 곧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없었다면 멀리서 그것을 환영하며 기대하였던 모든 사람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채 모두 허무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도 십자가의 속죄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들의 구원은 현실화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확증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그렇게 믿고 죽은 사람들까지도 십자가에 와서야 그들의 구원이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라는 말이다.

B. 이 같은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 주는 말씀이 있다.

곧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 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마27장50절-53절)”는 말씀인데 성경 상에 여기에만 있는 말씀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지만 지금까지 정확한 해석이 대단히 어려웠던 말씀이었는데 말할 수 없이 부족한 이 사람에게 성령님은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셨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그 의미를 말하고자 한다.

1. 첫째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던 그 지성소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일 년에 단 한 번씩만 대제사장이 그것도 어린양의 피를 가지고야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어떤 인간도 회복시킬 수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가로막이를 의미한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그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막혔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제는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고 교통 교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를 말한다. 그래서 그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하면서 그 육체가 십자가 위에서 찢어짐으로 그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히10장20절)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다.

ㄴ. 둘째로 그렇게 주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기 때문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한다. 여기서도 먼저 “자던 성도”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임에 틀림없는데 자고 있던 자들이라고 하니 그들은 죽은 자들이었다는 것이다.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을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고 하기 때문이다(살전4장13절 이하). 성경은 스테반의 죽음도 잔다(행7장60절)고 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잠자던 곧 죽었던 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이루실 때에 무덤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곧 이 세계의 종말에 가서라야 되어지는 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이루어 졌다는 말이다. 즉 그것도 무덤이 열리며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곧 십자가 이전 시대에 믿고 죽었던 자들이 그때에 사죄와 구원의 효능을 실제적으로 입게 된다는 의미를 확장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다.

ㄷ. 셋째로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다고 함으로서 무덤에서는 일어났지만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라야 그들이 잠들었던 무덤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하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이전에 죽어 무덤 속에 있던 자들도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왔고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때에 비로소 속죄의 효능을 입고 구원이 확정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이미 죽어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은 물론이지만 죽지 않고 그때까지 살아 있던 사람들의 믿음도 십자가에 와서야 사실상 구원의 효능을 입게 되는 것이다.

ㄹ. 넷째로 그렇다면 십자가 이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물론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에 세례가 포함된다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것도 자기의 구속사역을 완전히 마치신 다음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아니 이미 지적된 바가 있듯이 주님 자신도 십자가 이전에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일이 있는데도(요3장14절-16절, 17절, 6장40절) 불구하고 십자가 이후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할 복음을 명령하시면서 믿음만이 아니라 거기에 세례까지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셨다는 사실은 십자가의 전후시대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다는 것은 일치하지만 십자가 이후 시대에는 거기에 반드시 세례가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 이전 시대에는 믿음만으로 구원이 되지만 십자가 이후 시대에는 반드시 거기에 세례가 포함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먼저 이렇게 이해하여야 하는 이유는 십자가 이전에는 믿음으로 구원이 된다고 하시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 이후에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믿음과 함께 세례를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판단하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에게 자가당착적 모순이 있다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즉 십자가 이전 시대에는 세례가 명령 되어진 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말이다.

ㅁ. 다섯째로 그다음 이유는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속죄의 효능을 실제로 입을 수가 없기 때문이며 또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례는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V. 세례요한의 세례와 그리스도가 명한 세례

지금까지 교파를 막론하고 세례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마3장11절)”고 한 세례요한의 세례를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세례와 동일한 것으로 알아온 비성경적 오류에 빠져 왔다.

A. 양자의 차이

세례요한의 세례와 그리스도의 세례와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ㄱ. 첫째로 그 대상이 다르다.

세례요한의 세례는 그 적용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되지만(요1장31절) 그리스도가 명한 세례는 온 천하 만민이 그대상이다(막16장15절).

ㄴ. 둘째로 양자는 공히 물속에 잠기는 침수 세례라는 점과 역시 양자는 죄 사함을 받는다는 점은 공통적이다(눅3장3절, 행2장38절). 그러나 세례요한의 세례로는 성령을 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다르다(행19장2절-6절).

ㄷ. 셋째로 그러므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고 그 같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명하신 세례가 시작된 이후로 부터는 세례요한의 세례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아야 하는 세례라는 것을 증거하여 준다. 때문에 그 양자를 똑같은 “물세례”라고 하는 전 세계의 신학은 비성경적 입장에 빠져 있을 뿐이다.

B. 성령세례와 불세례의 의미

그렇다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마3장11절, 눅3장16절)”고 한 세례요한의 말에서 그리스도가 주실 것이라는 “성령과 불로 세례”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가 명하신 세례와는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 것인지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의문이다. 왜냐하면 세례요한 자신이 자기가 주는 물세례와 그것을 대조시켰을 뿐 아니라 자기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란 분명히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분이 베푸실 것이라는 성령과 불의 세례가 무엇인지가 반드시 확인 되어야 하겠기 때문이다.

ㄱ. 첫째로 성령세례와 불세례를 구별해야 한다.

세례요한의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전 세계의 신학은 특히 한국에서의 모든 교파는 성령과 불을 같은 것으로 보고 성령과 불의 세례란 하나를 말한다고 믿어 온다. 만약 그것을 같은 것으로 보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그리스도는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마3장12절, 눅3장17절)”는 말씀으로 불 때에는 그것은 오늘날 주님을 믿는 자들과는 상관없이 마지막 심판과 관련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불의 세례는 심판과만 관련된 말씀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불의 세례란 성령세례와 불세례라는 두 가지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ㄴ. 둘째로 이와 같이 보아야 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행1장5절)”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즉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만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는 최초로 언급하신 성령세례에 대한 말씀인데 거기에 “불”이라는 말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되풀이되는 말이지만 성령과 불세례란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세례와 불세례라는 두 가지 세례를 말하는 것이다.

ㄷ. 셋째로 이뿐 아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나 누가와 병행되는 세례요한의 말을 기록하면서도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막1장8절)”고 함으로서 불이라는 말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세례와 성령세례는 다른 것임을 나타낸다. 사도 요한도 “33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요1장33절-34절)”고 함으로서 주님은 단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자로 나타나 있다.

ㄹ. 넷째로, 역시 뿐만 아니다. 고넬로 가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설명하면서 베드로는 그 가족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보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행11장16절)”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노라고 함으로서 거기에서도 단순히 성령세례로만 말하여졌을 뿐이고 불이라는 말은 아예 없다.

이와 같은 성경적 사실들로 볼 때 불세례는 분명히 성령세례와는 다른 또 하나의 세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성령으로도 세례를 주실 분이시고 불로도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지는 것이다.

ㄹ. 다섯째로 그렇다면 불세례란 과연 무엇인가?

물론 그것은 심판을 말한다. 그것은 그리스도는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하면서 그분은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막3장12절)한 세례요한의 말에서 잘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요5장22절)고 함으로서 그리스도가 심판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확증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되시기도 하고 심판자가 되시기도 하다는 말이다. 까닭은 성령세례란 구원을 말하는 것이며(고후1장21절, 엡1장13절) 불세례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기(요5장22절)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령세례와 구원의 조건으로 명하여진 세례와는 같은 것인가 아니면 차이가 있는 다른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필자가 참빛지 상을 통해서 말한 바 있지만 훗날로 미루고 여기서는 그냥 지나간다.

VI. 어찌하여 십자가 이후 시대에는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그것은 그 이전 시대에는 세례가 명하여진 바가 없었음에 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전히 마치신 후에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명하셨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이지만 또 다른 이유는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죄 사함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은 실제로 세례를 죄 사함의 조건으로 말하기도(행2장38절, 22장16절)하기에 구원의 절대적인 근거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효능을 세례를 받지 않고는 입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역시 그 이유는 성경은 세례로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함으로서 옛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남이라고(골2장12절, 롬6장3절-4절)고 확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성경은 세례로서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 혹은 참여하는 것이 되며 따라서 그 죽음과 부활의 효능을 입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확증한다.

그렇더라도 또 하나의 의문은 남는다. 즉 그것은 구약 시대에는 곧, 십자가 이전 시대에는 세례가 명하여진 일이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세례를 받지 않았음으로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일뿐 아니라 죄 사함의 효능도 입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의문 말이다.

거기에 대한 저자의 입장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직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인데 거기에 연합 하는 일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며 그렇다면 그들은 거듭나지도 못한 자들일 것인데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라는 의문도 필연적이다.

이에 대한 성경적 대답은 이미 앞서도 언급된 바 있듯이 십자가 이전시대의 사람들도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십자가의 속죄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효능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 이치이다. 따라서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확보 받았으나 아직 그 효능을 실질적으로 입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십자가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와서 비로소 그 효능을 소급 적용받는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죽어 그 영혼이 떠나가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무덤이 열리며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그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성에 들어갔다(마27장50절-53절)는 말씀이 증거하는 바이다.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에 그 이전에 믿고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던 자들이 그 속죄의 효능을 입음으로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그 무덤으로부터 나와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니까 되풀이되는 말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들의 영도 그때에 다시 살아나는 효능을 입는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거듭남이란 없는 것이다.

A. 그렇다면 거듭난 자들과 거듭나지 못한 자들 간에는 무슨 차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십자가이전 시대의 구원받은 자들과 그 이후에 구원 받은 자들 간에 그 어떤 차이라도 있는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해야 한다. 즉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마11장11절)”는 주님의 말씀이 그 사실을 나타내신다.

ㄱ. 첫째로 세례요한은 천국에 못갈 사람이니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하는 뜻은 결코 아닐 것이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천국에 갈 사람과 가지 못할 사람을 비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세례요한이 천국에 못갈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는 도저히 없다. 그는 동생의 아내와 부부로 사는 헤롯 임금의 불의를 직설적으로 공개 비판을 하다가 순교까지 당한 사람이니까 그가 천국에 가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인 것이다.

ㄴ. 둘째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라고 하니 더욱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말인가? 주님 자신도 여자를 통해서 출생한 사람인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주님은 모든 인간은 여자가 낳은 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여자가 낳은 자”라는 의미는 실로 무엇이겠는가? 문제 해결의 열쇠다. 그것은 곧 거듭난 자들을 거기에 대조시키는 의미의 말씀인 것이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거듭남도 성경에서는 주님이 맨 처음으로 말씀하셨고(요3장3절-6절) 역시 주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요1장12절-13절)”고 함으로서 성경은 거듭난 자들을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 시대 곧 세례가 적용되지 않던 시대에 믿은 자들도 천국에 가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들은 거듭나는 일은 없었기에 주님은 그들을 단순히 “여자가 낳은 자”라고 표현하신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주님이 거듭남을 말씀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요3장6절)”는 것도 이 같은 의미를 말한다. 즉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것은 육적으로 난 것을 의미하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곧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역시 그러니까 천국에는 여자가 낳은 자와 거듭난 자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고 거듭난 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여자가 낳은 자 보다는 크다는 것이다.

ㄷ. 그렇다면 어찌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셨겠는가라는 의문도 아직 풀리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여자가 낳은 자들이란 십자가 이전 시대에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쉽게 말하여 구약 시대라는 의미이다. 성경도 율법 시대는 세례요한의 때까지(마11장13절, 눅16장16절)라고 확인케 한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천국 갈 여자가 낳은 자중에서 마지막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가 어찌하여 여자가 낳은 자중에서 가장 큰 자인가? 그가 선지자 중에서는 마지막 선지자이며 실제로 그리스도를 보았고 만났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주었고 순교까지를 당하였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생각한다.

ㄹ. 그래도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하나가 더 있다. 그것은 어찌하여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자 곧 여자가 낳은 자보다는 더 큰 자인가라는 문제이다. 까닭은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다(요1장12절-13절). 저자는 십자가 이전 시대에 믿어서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명시한 성경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믿고 있다.

VII.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십자가의 구속과 세례

우리는 천하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행4장 12절)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의 주제이며 절대적인 구원의 근거라는 사실을 이미 보았다. 또한 세례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거듭나는 일로서 그 십자가의 속죄의 효능을 실제로 입는 것이라는 사실도 보았다. 그러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갈보리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효능이 사실상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확보한 상태에 있었던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도 보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경의 주제이고 그 효능을 구체적으로 입는 것이 세례라면 그 세례가 십자가 이전 시대에도 상징적으로라도 나타나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는 취지와 의미 때문에 그것을 살피려 한다.

A. 첫째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던 가죽옷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본래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두 사람 공히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창2장25절)”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창3장7절)” 어떤 이들은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말씀을 육적인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로 이 성구를 해석하기도 한다. 필자는 이 같은 이해에 동의하기 곤란하다. 즉 육적인 눈이 밝아진 것이라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육적인 눈은 어두워 있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육적인 눈이 밝아졌다면 오히려 죄를 깨닫는 일이 무디어 지는 것이 정상인데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결과로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엄청난 죄악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부끄러워졌다고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죄를 범하기 전에는 부끄럽지 않았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나 아담은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창3장10절)”고 말하였고 그러한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벌거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창3장11절)”는 아담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 것은 분명히 선악과를 죄악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결과라는 사실을 말하여 준다. 따라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우기 위하여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수치를 가리우려는 처사이었던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말한다면 선악과를 따먹은 전후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에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졌다는 것은 그 죄로 말미암은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가장 정당한 이해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은 벌거벗고 있었다는 외부적인 상태 때문에 초래된 것이 아니고 죄를 범한자의 내면으로부터 발로 되는 부끄러움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으로부터 쫓아내기는 하시면서도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들어 입은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뜻이 있는 것을 필자는 이미 참빛지 상을 통해서 말한바 있다. 즉 무화과 나뭇잎의 옷은 자기들의 방법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수치를 가리워 보고자 하는

것이였기 때문에 인간들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방법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의 모든 종교들 곧 불교나 유교나 또 다른 종교들이나 철학이나 윤리 사상을 모두 대변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초래된 죄의 부끄러움을 결코 가리울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나뭇잎의 옷이기 때문에 그냥 있어도 바스러지기 때문이지만 햇빛 때문에는 더욱 빨리 바스러질 것이기 때문이였다. 그렇다 인간 세계에 죄악이 있게 된 것도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이고 그로 말미암아 보편화 되고 체질화된 죄의 문제를 해결 하려고 인간들은 부단히 노력하여 왔지만 그러한 노력들은 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죄악을 가리워 보려고 하였던 아담과 하와의 노력과 방법의 맥락과 그 범주 안에 있는 것일 뿐임을 말하여 준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화과 나뭇잎의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던 것이다. 즉 이것은 단순히 나뭇잎의 옷보다 오래간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악의 뿌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가를 보여 주신 것이며 또한 그것은 이미 타락한 인간들이 구상하는 그어떤 방법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어 진다는 것을 예시하여 주신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 가죽옷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혀 주신 옷이였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인간의 고안도 제안도 없고 그 어떤 다른 존재의 협력도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하셨던 짐승 한 마리를 잡아 죽임으로서 만들어 입힌 옷이라는 말이다. 즉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동물 한 마리가 피를 흘리고 희생되게 하셨다는 사실인데 이피를 흘린 짐승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그리스도를 의미 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릿간으로 부터 출발하신 그리스도는 마침내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요1장29절)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가죽옷은 장차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세례를 예시하여 준다. 왜냐하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롬13장13절)”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갈3장27절)”고 확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례는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신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그 근원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던 거기에서 벌써 하나님이 예시적으로 시행하신 일이었다는 말이다.

B. 내시에게 전하여진 복음과 세례

이와 맥을 같이하는 성경적 사건은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서 나타난다.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나라의 재무부장관 정도 되는 내시 한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도중에 있었다(행8장27절-28절). 그런데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그가 있는 곳까지 가라고 하였으며(26절) 또한 성령이 그 수레 가개로 가라고 하셨고(29절) 가서 보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물었더니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내시는 빌립을 수레에 함께 올라탈 것을 요청하였고 함께 앉은 빌립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행8장30절-34절)물었다. 이에 빌립은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는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행8장35절-36절)”고 하였고 이에 명하여 수레를 세우고 빌립과 내시가 두 사람이 함께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주고, 받고 올라 올 때

에 주의 영이 빌립을 초자연적으로 데려 가버렸다(행8장38절-39절).

첫째로 이 사건에서 그 내시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가 갈 정도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도 반드시 세례는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래서 빌립을 거기까지 보내어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을 보니까 말이다.

둘째로 세례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분명하게 증거하여 준다. 즉 빌립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였다(35절)고 하였는데 그 복음을 들은 내시가 길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서는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그 어떤 거리낌도 없다고(36절) 하였으니 빌립이 전한 복음 가운데에는 세례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기 때문이다.(주 원중호 저 세례의 신학p) 그러므로 세례는 행함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라는 전 세계의 기독교는 단순히 세례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오해 하였다는 한계를 넘어서서 비 성경적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세례는 단순히 기독교 진리의 지극히 미미한 하나의 부분이 아니고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적 근거이며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세례는 확실한 복음이다.

셋째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도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여 준다. 그러하다.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그 어떤 교단을 막론하고 부인하지 않는다. 필자는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이 전하여 졌었다(갈3장8절)는 것을 이미 참빛지 상을 통해서 밝힌바 있다. 여기서도 이미 우리가 확인하였던 것처럼 천하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이 주어질 일이 없으므로 십자가 이전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구약성경의 복음에도 포함되어 있는 세례를 전 세계 기독교는 교회가 세워 진지 2천년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가 지금 거론하는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근거로 복음을 전하였는데 거기에 세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는 바이지만 세례는 단순히 십자가 이후에 와서 비로소 생긴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있었던 것임을 너무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십자가 이전 시대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을 뿐이었다. 역시 우리가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으로부터 추방하기는 하시면서도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던 하나님의 가죽옷은 역시 세례를 예표하는 것이었음도 다시 한 번 확인되는 것이다.

넷째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가 갈 정도의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여 주기도 한다. 그만큼 세례의 중요성을 말하여 준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 내시의 믿음은 십자가 이전 시대 곧 구약 시대의 믿음이었던 사람들도 있다. 상관없다. 신약 시대의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고찰하고 있는 성경은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한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요즈음 같이 도로 사정이나 교통수단이 좋을 수가 없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어찌면 수개월에 걸쳐 왔다가 가야할 정도의 믿음이기는 하지만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하러 왔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었겠느냐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더라도 십자가 이후에는 그 구약 시대의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 성경의 사건은 확실하게 증거하여 준다는 말이다.

다섯째로 이 내시를 세례를 주시기 위하여 주의 사자(26절)와 성령과(29절)과 주의 영(39절)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는 말이다. 그것도 빌립과 내시가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주고 올라올 때에 주의 영이 초자연적으로 빌립을 이끌어갔다는

사실은 거기까지 빌립을 가게하신 목적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빌립을 초자연적으로라도 다른 곳으로 데려 가셨다는 것이니까 그만큼 세례는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임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주신 사건이다. 승천 직전에 주님 자신도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라고 증거하셨듯이 말이다.

VIII. 나오는 말

세례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환원운동을 한다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한 교단(?)의 주장이 아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십자가의 구원과 직결되는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며 복음이다. 이와 같이 세례가 구원의 핵심적이며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환원운동의 대열에 현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이어야 하고 특히 한국에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의 확신이기를 바란다. 더더욱 신학 대학의 신학과 교수 형제들을 비롯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든 동역자들의 확신이 되어야하고 되기를 열망한다. 만약 필자의 이 같은 입장에 이의나 의문이 있으면 그대로 제기하여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원종호라는 인간은 의례히 그러한 인간이니까 그대로 가만히 두고 보는 일은 없기를 진실로 갈망한다. 필자가 주장하는 것이 비성경적으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대로 가야 하는 환원운동의 진실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의나 의문이 참빛지 상을 통해서 제기되어도 좋고 공개 토론으로 되어도 상관없다.